

미
의
집

작가,연출
정 다운

조연출
황 인욱

기획
정 성원

일시
5월 28,29,30
6시 30분
(30 : 2시,7시)

장소
학생회관 4층
411호 계단강의실





04 황인욱

디지털 디자인과

어느덧 2009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이 일년같은 생활 속에 끊임없이 또 나아가고 있죠. 다람쥐 첫바퀴처럼 울고, 웃고, 자고, 일어나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도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기에 버티는것 같습니다.

사실 무언가에 얹메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어나오기 힘든 이 연극이란 울타리의 안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연극!, 이로 말할수 없는 짜릿한 매력!

상상만으로도 아직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무엇의 묘한 매력이 그 수많은 인재들을 무대라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수도 없는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종종 안되겠다 힘들다 말하며 지치기도 하지만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동안 무대의 경험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본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관객 여러분의 만족도와 즐거움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과 경험을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항상 수많은 후회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만.. 지금 이 시간 이 곳에 모인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온 모습을 봄주시고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질책과 따가운 시선으로 보신다 하여도 저희는 경순하게 받아들이며 발전하고 승대극회를 이어가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이 끝이 아닌 더 좋은 극과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뵙길 기원합니다.

특히 졸업후에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동문 선배님과 수고 많았던 연출다운이와 항상 열심히 하는 기획 성원이 그리고 저에게 힘을 준 SJ.....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Special thank's to

항상 공연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동문선배님들
사랑합니다.



막 잡아 올린 고등어처럼 파랗고 싱싱한 연극, 신선한 연극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미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본 마당에, 신선한 연극을 하는 것은 어려울까.

원래 연극은 관객들과 대화하고 호흡하지 않았다. 무대는 관객과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햄릿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관객과 배우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한창 유행을 타게 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형태였지만 유행이 오래 가면서 신선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마당놀이 같이 관객과의 호흡을 요하는 연극 스타일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다시 정극 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어 보았다. 미미의 집에는 정극이라는 바탕에 판타지 요소를 첨가함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미미의 집에는 관객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미미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단지 관객들은 미미가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겁탈당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모습을 관음증 환자처럼 가만히 앉아 팔짱을 끼고 미미를 관찰하듯이, 혹은 몰래 엿보듯이 바라보며 즐기기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다른 재미있는 요소도 넣어보았다. 다른 소품 대신 커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심각한 장면에 즐거운 웅츠와 춤을 넣는 장면을 삽입하는 방법 등. 즉, 딱딱해 보일 것 같은 정극이라는 틀에 새로운 재미코드를 삽입시켜 관객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관객들은 편하게 즐기며 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극이 점점 진도를 나아가면 갈수록 관객들은 불편해질 수 있다. 많은 생각을 요할 것이다. 미미의 집의 걸은 마치 하얀드레스로 치장한 미미처럼 가볍지만, 속은 결코 가볍지 않은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제는 본인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결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객들은 미미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편하게 앉아서 지켜보게 되겠지만, 속으로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고로 연출의 의도를 압축해서 이야기 하자면, 신선한 형식으로 관음증 관객들에게 재미와 고민을 함께 주고자 하는 것이다. 고민덩어리를 안고 나가게 하자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정극 스타일을 시도한 것이 관객에게 즐거움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연출 의도는 절반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연출 · 작가



정다운

언론홍보 07

기획



정성원

철학과 08

끓어오르는 욕심은 추진력이 되지만,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미의 집이라는 극을 꾸려가며 욕심을 다스리느라 훈줄이 났습니다. '끝내주는 극을 써 오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고, 생 초짜 배우들에게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습니다. 능력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획에게 '스폰서만 잘 받으면 될 거 아냐' 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었고, 선배들에게는 무리하게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즐거우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같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본전을 찾고 남은 겁니다. 저는 미미의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몰아 붙여서 행복했습니다. 욕심을 덜 부어서 아쉽지, 제어를 잘 못해서 아쉽지 않습니다. 열정은 남에게 전하고 통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욕심을 통해 배우들과 스텝들, 극회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을 맘껏 펼치게끔 도와준 극회장님 감사합니다. 잘생긴 기획 님도 감사합니다. 조연출님도 감사합니다. 잘하진 않지만 열심히 따라와 준 배우들도 고맙습니다. 스텝들 수고했어요. 항상 곁에 있어준 우리 동기 명희, 보라 고맙다. 인수야, 병수야, 현종아, 현우야, 진욱아. 너희들은 군 생활 열심히 해라. 한생아. 정말 보고 싶다. 연락 좀 받아라. 명희는 6월 중순에 또 보자. 밤새도록 술 따라 주신 선배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용 소주를 마시게 해주신 승태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 안무 짜 주신 용혁 오빠도 고마워요. 미미의 집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영감을 주신 소문안난 수족관 영화인들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에게 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극회 밖 친구들도 너무 고맙다. 휴학중이라 얼굴은 자주 못 보았지만 우리는 친구잖아. 동생 우일이도 누나 따라 반 지하에 산다고 고생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잘생긴 반쪽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젠장할!! 망할! 없구나!! 이게 다 극회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존재하도록 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연을 올린 사람, 공연을 본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전 만족한답니다. 미미의 집에서 만나,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나 안 된다고 하진 않을까.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 속에 나도 꺾 수 있을까. 할까 말까 공연 내내 망설이다 무작정 말을 꺼냈다.

"저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왠지 지금 승낙을 얻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혹시나 미루면 거절될 것만 같은 우려에 거스름돈도 내일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아까 삼던 팜플렛의 거스름돈을 준다며 다가온 그 분을 보며, 거절하면 내일 한번더 만나서라도 받아달라는 말을 할 생각까지 하고는 무작정 말을 꺼냈지만 그 분의 대답은 예상과는 달리 흔쾌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이놈이 그때 그분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 이제 그분의 입장이 되어 앞뒤 가리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온 후배들을 받게 되었다. 신입생 환영공연을 보고 들어와 신입생 환영공연의 기획을 맡아 공연 막바지가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못한 점이 너무 많다.

예전엔 처음이니까, 대학생이니까 하는식으로 합리화, 변명, 자기위안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앞선다. 처음이어도, 미숙하더라도 더나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루하루 갈수록 아쉬움만 쌓여갈 뿐이다. 캐스트들의 연습을 보면서도 저번 공연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자꾸만 들어 집에 가는 길에 대사를 혼자 되뇌었던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연이 올라가면 이 모든 아쉬움도 뒤로 하고 캐스트, 스텝들을 볼 텐데, 그들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만을 가져가길 바랄 뿐이다. 함께 공연을 준비한 모든 극회인이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준비되지 못한 기획이라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기획 잘못 만나 재능을 전부 쓰지 못한 연출님을 비롯한 캐스트, 스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천성이 느슨한 놈이라 모든 일처리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하곤 지지부진했는데 이 점 또한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기획을 하면서 또한 내 자신이 바뀐 것 같다. 이 점에선 공연 준비 중에 만나 많은 걸 알려주신 선배님 한분 한분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난 아직도 극회를 잘 모르는데 극회를 알면 알수록 극회에 대한 애정이 더욱 더 깊어진다. 극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옛날에 조나라에 3년간 물지도 날지도 않았다는 새가 있었다고 한다. 그 새가 왜 안 날고 안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극회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도 그와 비슷하리라 감히 생각한다.

평소에도 잘하진 못했지만 공연을 준비하며 가장 소중한 분들께 너무 못해 드린 것 같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한다. 극회 생활과 대학생 활동 궁극적으로 내게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공연이 끝나면 진정 신경 쓰고 진정 마음을 두어야 할 분들께 그동안 못한 것들에 대해 더 잘해드리고 싶다.

캐스트

스텝



이 무대에서
젊어지고 있다...
저..전역했어요.
이제 전 자유라구요
쿠쿠쿠

왕자역 유병기
경역학부 06



무대감독
김진훈
언론홍보09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 미미야!
색다른 경험, 내 첫무대.
이헛 ~♡

미미역 원지연
기계과 09



조명감독
원종진
전통전 09



돈안들고 색다른 경험이다.
트레이닝을 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나온다던데 그 반대가
나오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하인1·아버지 이경문
글로벌미디어 09



음향감독
이한
전통전 09



하!하!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제 연극도 마무리 단계네요.
ㅋㅋ
아! 목아프다.

하인2 오성수
경영학부 09



안무
박용혁
단대 영화과
(승실불문과06)



넌 무슨꿈을 꾸었니?

어머니 김봉성
국제통상 06



분장
김명희
국제통상 07



엄마 저 코좀 높여주세요

아이 이보라
전기과 07



홍보
송정화
언론홍보 08



사랑한다 내 지인들아~♡
너희는 내 엔돌핀이야~♡
사랑한다 S J ~~~~~♡

목소리·검은옷 황인욱
디지털디자인 04



의상·소품
이세라
벤처과 08

정기공연 연보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 1921년 6/13 | 연홍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말로" | | | 35 | 1986년 9/11,12,13 | "코풀소" E.이오네스코 작 | 안상준 | 송기범 |
| | | "대비극 노예의 탑" | | | 36 | 1987년 6/3,4,5 | "한 여름 밤의 꿈" | 이준석 | 오정열 |
| | 1923년 7/7,21 | 전원극 "우의리행진" "기개인간" | | | 37 | 1987년 9/10,11,12 | 세익스피어작 | 권형진 | |
| | | 동백꽃" "십년후" 엽액청년희극관 | | | 38 | 1988년 6/2,3,4 | "오해" A.까뮈 작 | 오정열 | 박경근 |
| 1 | 1923년 7/28,29 |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 | | | | "세 번은빨개 세 번은 길게" | 이충일 | 오정열 |
| 1 | 1965년 11/1 |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석 작 | 이번 | 천진호 | | | 이여행 작 | | |
| 2 | 1968년 10/28 | "our town" Thoronto wild 작 | 이태주 | | 39 | 1988년 10/10,17,18 | "안내놔?못내놔!" 다리오 포작 | 권태수 | 송근호 |
| 3 | 1969년 10/10 | "의자들" E.이오네스코 작 | 고봉언 | | 40 | 1989년 5/5,26,27 | "농녀" 윤조병 작 | 천승범 | 안선후 |
| 4 | 1969년 10/28,29 | "The miracle worker" | 고봉언 | | 41 | 1989년 10/10,17,18 |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 오정열 | 이반 |
| | | william gipson 작 | | | 42 | 1990년 5/24,25,26 |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 권태수 | 이준석 |
| 5 | 1970년 5/15 | "성자의생물" | 한명재 | | 43 | 1990년 6/30,31,9/1 | "황씨연대기" 황석영 작 | 천승범 | 이영민 |
| | | john millington synge 작 | | | 44 | 1991년 9/5,6,7 | "생일파티" H.핀터 | 남재우 | 권승해 |
| 6 | 1970년 10/28,29 | "승부의결말" samuel barclay 작 | 김양기 | | 45 | 1991년 9/5,6,7 | "날개" 이상 작 | 양현준 | 권형진 |
| 7 | 1971년 5/26,27,28,31 | "the rising of the moon" | 정종학 | | 46 | 1992년 3/19,20,21 |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 임경희 | 홍은영 |
| | 6/1,2 | lady gregory 작 | 주정서 | | | | | 정현용 | |
| | | "건널목 삽화" 윤조병 작 | | | 47 | 1992년 9/17,18,19 | "금관의 애수" 김지하 작 | 홍석환 | 송근호 |
| | | "담배해독에 대하여" 안톨체홉 작 | 한명재 | | 48 | 1993년 10/21,22,23 | : "세일죽음즈맨의 죽음" A.밀러 작 | 황명식 | 박원상 |
| | | "황금단지" 푸라우터스 작 | 유근배 | | 49 | 1993년 10/21,22,23 | "멕시택시" 김상수 작 | 소장호 | 박원상 |
| | |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 차현재 | | | | | 이명상 | |
| 8 | 1971년 11/4,5,11 |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작 | 차현재 | | 50 | 1994년 5/26,27,28 | "굿 닉터" 날 사이먼 작 정석용 | 소장호 | |
| 9 | 1972년 5/25,26,27 | "생일 파티" H.핀터 작 | 한명재 | | 51 | 1994년 9/29,30,10/1 |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작 | 소장호 | 박원상 |
| 10 | 1973년 5/21,22,23 | "미시시피의 결혼" F.뒤렌마트 작 | 고봉언 | | 52 | 1995년 5/25,26,27 |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 현승숙 | 류성환 |
| 11 | 1973년 10/25,26,27 | "방" H.핀터 작 | | | 53 | 1995년 11/26,27,28 | "나의라임오렌지나무" | 김윤성 | 남재우 |
| | | "기도" (소극장) f.아라발 작 | 김득남 | 차현재 | | | 박스콘셀러스 작 | | |
| 12 | 1974년 5/25,26,27 | "정의의 사람들" a.까뮈 작 | 정종학 | | 54 | 1996년 3/7,8,9 | "자살" 김연국 작 | 한석운 | 손미락 |
| 13 | 1975년 6/9,10,12,13 | "싸움터의 산책" | 김홍수 | 안홍순 | 55 | 1996년 9/5,6,7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조태희 | 이충희 |
| | | "도스토옙스끼라는 이름의 거북이" | | | | | 테네시 윌리엄 작 | | |
| 14 | 1975년 10/29,30,31 | "비디만과 방학병" 랙스 프리시 작 | 김기열 | 안홍순 | 56 | 1997년 3/13,14,15 | "우리 읍내" 손론 와일더 작 | 신하영 | 서수경 |
| 15 | 1976년 6/1,2,3 | "안터뷰" 장 클로드 반 이데리 작 | 김기남 | 김득남 | 100주년 | 1997년 10/8,9,16,17 |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 엄세범 | 정종화 |
| 16 | 1976년 10/25,26,27,28 | "햄" 장 클로드 반 이델리 작 | 김영덕 | | 57 | 1998년 3/18,19,20 | "설안 놀이" 이오네스코 작 | 조태희 | 권내리 |
| 17 | 1977년 6/15,16,17,18 | "EQUUS" 피터쉐퍼 작 | 백정식 | 김영덕 | 58 | 1998년 11/26,27,28 | "몰고기의축제" 유미리 작 | 윤장한 | 조태희 |
| 18 | 1977년 10/10,11,12,13 | "EQUUS" 피터쉐퍼 작 | 방영철 | 김영덕 | 59 | 1999년 3/11,12,13 |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 이윤재 | 이경희 |
| 19 | 1978년 6/5,6 | "Counter point" | 방영철 | 김영철 | | | 이정원 작 | | |
| | | olov hartman 작 | | | | | | | |
| 20 | 1978년 10/24 | "EQUUS" 피터쉐퍼 작 | 민승기 | 김영덕 | 60 | 1999년 9/2,3,4 | "세상 낚기" 이정원 작 | 이정원 | |
| | | (대학연극 축제참가) | | | 61 | 2000년 5/4,5,6 | "아름다운 시인" 장진 작 | 이윤재 | 이경희 |
| 21 | 1979년 6/18,19 | "한강 2979" 김영덕 작 | 정재호 | 이병국 | 62 | 2000년 8/31,9/1,2 | "소나기" 황순원 작 | 김귀하 | 박정국 |
| 22 | 1979년 9/29,10/2 | "초본" 오태석 작 | 이정일 | 황정순 | 63 | 2001년 3/29,30,31 | "인간에 대한 애의" 서정훈 작 | 이육재 | 서정훈 |
| 23 | 1980년 11/5,6 |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 브라이언 클락 작 | 엄세범 | 64 | 2001년 9/6,7,8 | "바らく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작 | 서정우 | 김희진 |
| 24 | 1981년 6/12,13 | "노부인의 방문" F.뒤렌마트 작 | 이종규 | 황정순 | 65 | 2002년 3/13,14,15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과테 작 | 김영걸 | 김명진 |
| 25 | 1981년 11/12,13,14 | "달맞이 꽃" 김병종 작 전석근 | 황정순 | | 66 | 2003년 3/6,7,8 | "옥수동에서 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이미나 | 윤장한 |
| 26 | 1982년 5/12,13 | "카리풀라" A.까뮈 작 | 옹태웅 | 지숙 | 67 | 2003년 9/4,5,6 |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 김성은 | 최연경 |
| 27 | 1982년 10/7,8 | "섀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퍼 | 전희식 | 황정순 | 68 | 2004년 6/3,4,5 | 사무엘 베케트 작 | 김성은 | 강혜정 |
| 28 | 1983년 6/20,21 | "미시시피의 결혼" | 전희식 | 김영덕 | 69 | 2005년 3/2,3,4 | "마술가게" 이상범 작 | 김성은 | 이육재 |
| | | F.뒤렌마트작 | | | 70 | 2005년 10/6,7,8 | "히바루사" 흥가이 작 | 정한길 | 한재진 |
| 29 | 1983년 10/7,8 | "트레비" 존 보렌 작 | 이원우 | 오정열 | 71 | 2006년 6/1,2,3 | "청춘애잔" 박근영 작 | 이고운 | 이육재 |
| 30 | 1984년 5/24,25,26 | "도가니" A.밀러 | 이종규 | 오세환 | 72 | 2006년 9/21,22,23 | "사랑에 관한 일곱 가지 소묘" | 김병연 | 김승태 |
| | | 엄세범 | | | | | 위성신 작 | | |
| 31 | 1984년 10/11,12,13 | "빈전소" 존 스톨렌버그 작 | 차세훈 | 이용섭 | 73 | 2007년 5/31,6/1,2 | "굿 닉터" 날 사이먼 작 | 신영준 | 한재진 |
| 32 | 1985년 5/9,10,11 | "빈만굴" 존 스톨렌버그 작 | 김상현 | 이용섭 | | | | | |
| 33 | 1985년 11/21,23 | "신부님 우리 신부님" | 학승민 | 송기범 | 74 | 2007년 9/6,7,8 |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 송극 | 박경근 |
| | | 조반니 과레스키 작 | | | | | 동문희 | | |
| 34 | 1986년 6/4,5,6 | "EQUUS" 피터쉐퍼 작 | 허성우 | 학승민 | 75 | 2007년 10/22,23,24 | "칼팬의고백" 김종철 작 | 박용혁 | 이육재 |
| | | | | | 76 | 2008년 9/28,29,30,10/1,2 | "결혼" 이강백 작 | 장한선 | 김성은 |
| | | | | | 77 | 2008년 11/27 ~ 29 | "오픈 커플" 다리오포 작 | 이보라 | 김명희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스폰

| 회 | 일시 | 작 품 | 기획 | 연출 |
|----|----------------|-----------------|-----|-----|
| 1 | 75/3/10,11,12 | 악마와 톰-에이닝 작 | | 김홍수 |
| 2 | 76/10/29,30,31 | 보석과 연인-이강백 작 | | 김득남 |
| 3 | 77/9/16,17,18 | 출발- 윤대상 작 | 전경호 | 안홍순 |
| 4 | 81/3/30,31 | 셋- 이강백 작 | 한 철 | 정재호 |
| 5 | 82/3/24,25 | 아리아 다 카포- | 이영호 | 오세한 |
| | | E.ST.MILLAY작 | | |
| 6 | 83/4/16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최시영 | 이용섭 |
| | | 김용락 작 | | |
| 7 | 84/3/8,9 | 블랙 코미디-블랙쉐퍼작 | 전희석 | 홍여석 |
| 8 | 85/7/20 | 개인의 소공간 - 호랄드 작 | 차세훈 | 김인보 |
| 9 | 86/3/17,18,19 | 아리아 다 카포- | 이영민 | 하승민 |
| | | E.ST.MILLAY작 | | |
| 10 | 87/3/12,13,14 | 인형의 집 - 헨리 입센 | 김정은 | 위성신 |
| 11 | 87/3/12,13,14 | 더러운 손-샤르트르 작 | 백윤형 | 박경근 |
| 12 | 88/3/24,25,26 | 불가불가 - 이현화 작 | 천승범 | 황금실 |
| 13 | 89/23,24,25 | 혹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 홍덕태 | 박경근 |
| | | 까뮈 작 | | |
| 14 | 90/3/8,9,10 | 우울증 환자- | 이명민 | 박예순 |
| | | 보토스트로우작 | 안상준 | 백로라 |
| 15 | 91/3/7,8,9 | 노크노크-줄수파이터 작 | 정현용 | 이범준 |
| 16 | 92/5/28/29,30 | 꿈 먹고 물 마시고- 김상겸 | 양현준 | |
| | | 이근삼 작 | | |
| 17 | 93/3/11,12,13 | 매두사 - 조지 케이저 작 | 소장호 | 박원상 |
| 18 | 94/3/10,11,12 | 어린왕자 - 생 쥐 베리 | 이명성 | 홍석환 |
| 19 | 95/3/9,10,11 | 봄 날 - 이강백 작 양명호 | 장석용 | |
| 20 | 96/5/30,31,6/1 | 울어라 뱃고동아 - | 정재훈 | 김영근 |
| | | 성준기 작 | | |
| 21 | 97/5/29,30,31 | 로물루스 대제 - | 박정극 | 정석용 |
| | | 뒤덴마크 작 | | |
| 22 | 98/6/5,6,7 | 결혼 - 이강백 작 | 강길호 | 안병진 |
| | | | | 류민주 |
| 23 | 99/6/3,4,5 | 자매 - 라투아니아 작 | 홍신택 | 권내리 |
| 24 | 00/11/16,17,18 | 도덕적 도둑-다리오포 작 | 김명진 | 강길호 |
| 25 | 02/5/30,31 6/1 | 노부인의 방문-뒤렌마크 작 | 강예정 | 서정우 |
| 26 | 03/5/29,30,31 | 텍스드리버 - 장진 작 | 김종백 | 한주영 |
| 27 | 08/6/4,5,7 | 한여름밤의 꿈- | 박한경 | 이원진 |
| | | 셰익스피어 작 | | |

배달가능, 각종 투표 최고의 맛

핫스타 숭실대점
☎ 822-3403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Sting

갈릭 Cupid

쎄븐스튜디오 (서류사진전문)

GO 바, 블루힐, 삼번가우동, 파스타리오
김가네, 스팅, 숯가마, 쎄븐스튜디오
갈매기살산적, 큰집갈비, 상투골, 대림스낵
천안문, 파라다이스, ok 김밥분식, 혜성복사
시골집, 명동식당, 토니잉크샵, 밥먹으려
손칼국수, 대나무골, 치킨매니아, 와와치킨
이모네



여름방학 어학연수

같은 환경, 같은 효과라면 $\frac{1}{10}$ 비용으로!

미국 어학연수 코스

| | |
|----------|------------|
| 학비 | 1,620,000원 |
| 기숙사비 | 945,000원 |
| 영어 학급료 | 2,025,000원 |
| 학생비자 진행비 | 675,000원 |

총 5,265,500원

정시 유학 프로그램 기준, 하루 6시간(Fulltime) 수업
※ 정률 1달러 = 1,350원

파고다 어학연수 코스 PIP

| | |
|-----------------------------|----------|
| 수업료 | 435,000원 |
| Pronunciation Clinic | Free |
| Presentation Skills | Free |
| 개인 Writing 험식 및 Group study | Free |

총 435,000원

PIP 1개월 코스 기준, 하루 6시간(Fulltime) 수업

미국식 어학연수 프로그램
PAGODA PIP

영미권 Native 강사진과 파고다의 40년 노하우가 결합되어 탄생한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집중 프로그램, 파고다 PIP!
파고다 PIP 학생은 뉴욕주립대 입학 시 토를 점수 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인정됩니다.
지금 뉴욕이 인생 PIP로 수준 높은 미국 현지식 수업을 만나세요!

